‘명인 · 명창의 대향연’

대한민국 판소리한마당 성료

‘2018 대한민국 판소리한마당’이 고창을 찾은 내외 관람객들에게 명인 · 명창들의 대향연, 전통문화예술의 진수를 선보이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동리 신재효의 정신을 계승하여 전통문화와 소리를 테마로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드높이는 대한민국 유일의 전통문화계승 축제인 ‘2018 대한민국 판소리한마당’이 고창을 찾은 내외 관람객들에게 명인 · 명창들의 대향연, 전통문화예술의 진수를 선보이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소리길 · 전통의 대를 잇다’를 주제로 대한민국 판소리한마당 개막제 및 개막공연 ‘KBS 국악한마당’을 시작으로 판소리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대중과 함께 소통해 전국에서 온 수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감동이 있는 판소리한마당을 고창읍성 특설무대와 동리국악당에서 선보였다.

올해로 세 번째로 열린 이번 ‘2018 대한민국 판소리한마당’은 고창의 위대한 인물인 동리 신재효 탄신 206주년 기념이자 신재효 선생에 대한 재조명과 판소리의 문화예술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명창 김영임, 이난초, 왕기철, 왕기석 및 대금명인 원장현 등 우리나라 최고의 명인 · 명창의 공연과 군민, 가족 그리고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 풍류의 멋을 소리와 춤과 음악으로 담아내는 전통문화 프로그램들의 높은 완성도가 돋보였다.

이번 판소리한마당에서는 ‘소리길 · 만정소리를 만나다’를 주제로한 판소리 완창무대(출연 : 김미숙, 서명희, 한계명, 김백송, 김혜영, 박수진)를 만정제 판소리 홍보가를 중심으로 만정소리의 진면목을 선보였으며, ‘소리길 · 시대의 아픔을 품다’의 창작 판소리전 이준 열사가, 동학농민혁명가, 안중근 열사가 등을 펼쳤다(출연 : 정순임, 박양덕, 김 연, 양은주). 또한 KBS국악관현악단을 초청해 대취타, 사물놀이, 팔도민요 등 수준 높은 국악의 진수를 소리길 위해 풀어냈다.

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판소리한마당은 판소리의 정통성을 이어 대중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전통문화 계승프로그램으로 전통과 현대적 조화를 이룬 성공적인 공연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아 관람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전통예술공연을 마련하여 역사문화관광도시의 품격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대학로 스테디셀러, ‘운빨 로맨스’

내일 오후 3시 30분 · 7시 30분 고창문화의전당서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김달님 작가의 네이버 웹툰과 황정음 · 류준열 주연의 드라마로도 잘 알려진 대학로 로맨틱 연극 〈운빨로맨스〉를 내일 오후 3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2회에 걸쳐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선보인다.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선정작인 연극 ‘운빨 로맨스’는 2017년 1월 초연 이후 최단기 10만 관객 돌파하며 대학로 스테디셀러 연극으로 자리 잡아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네이버 평점 10점 만점에 10점을 기록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연극 ‘운빨 로맨스’는 평소 자신이 운이 없다고 여겨 점집을 찾아 다니면서 운명을 극복해보려는 ‘점보늬’와 어린 나이에 건물주로 성공한 알뜰한 남자이자, 자신의 의지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제택후’가 주인공이다.

또한 대학로 인기 연극답게 ‘노월희’와 ‘한량하’로 대표되는 ‘멀티녀’와 ‘멀티남’의 큰 활약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웹툰 및 동명 드라마와 달리 연극적인 연출로 실감나는 즐거움을 고창군민에게 선사할 계획이다.

공연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 및 현장예매를 통해 가능하며, 관람료는 일반 3,000원, 학생 1,500원(회원 20% 할인)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KBS국악관현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순창여중서 국악협연

KBS국악관현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난 17일 순창여중 대강당에서 열렸다. KBS국악관현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는 국악관현악단을 중소규모로 편성해 노인시설이나 복지관, 농촌학교 등을 찾아 상대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우리 국악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이다.

KBS국악관현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난 17일 순창여중 대강당에서 열렸다.

순창여중 학생 250여명과 지역어르신 50여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국악공연에서는 KBS국악관현악단의 대취타 공연을 시작으로, 해금 독주와 임실필봉농악의 사물놀이, 팔도민요연곡, 신뱃놀이 등이 1시간 가량 펼쳐져 학생들과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국악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공연 말미에는 순창여중 합창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이 함께 ‘바람의 빛깔’과 ‘홀로아리랑’을 협연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음악회를 관람한 한 학생은 “우리 전통음악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지 몰랐다”면서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악을 바로 눈앞에서 보니 너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문체부, 출판 · 인쇄사 신고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 사항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출판사 · 인쇄사의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판사 · 인쇄사 경영자들의 신고 업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 · 군 · 구에 주소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했고,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개정안에서는 주소 변경 사항을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불편 민원 사항을 개선했다.

또한 출판사 · 인쇄사가 폐업하려면 신고관청인 관할 시 · 군 · 구에 신고확인증을 반납하고, 관할 세무서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2곳을 방문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관할 시 · 군 · 구와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 신고를 하면 일괄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폐업 신고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출판사 · 인쇄사 신고 업무 간소화를 위한 정부 내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뉴시스

지스타 공식 슬로건… ‘게임, 우리의 별이 되다’

지스타조직위원회는 1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앤리조트에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8’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 슬로건을 발표했다.

이번 슬로건은 ‘희망’과 ‘빛’을 상징하는 별과 함께 게임의 긍정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싶은 의지를 표현했다. 또한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 게임으로 하나 되는 ‘지스타’를 나타냈다. 조직위는 “올해 지스타가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임 경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스타 2018’은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다.

올해 지스타는 작년에 이어 한 단계 발전된 종합 게임 문화 행사를 목표로 잡았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해외 기업과 국가들의 참여도 예고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뉴시스